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

Forms of Community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김희석 (Hee Suk Kim)**

ABSTRACT

This article purport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and its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speaker(s) and the learner(s)/audience throughout the book of Proverbs.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s) and audience, made progressive developments in Proverbs 1-9; 10:1-22:16; 22:17-24:34; 25-29, and 30-31,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oundary of the teacher(s)/speaker(s) is gradually extended until the form of education utilizes the means of communal learning. Second, the boundary of learner(s)/audience is also extended until the form of education shapes the learner becomes the teacher. Third, the book of Proverbs is suggestive of a communal context of education that enables the teacher also learns from the learner. Fourth, wisdom education thereby deals with all elements of the life of the learner, which culminates in the formation of the wisdom worldview through the lens of the fear of the Lord. Fifth, this form of education leads the learning community to practice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In conclusion, the book of Proverbs helps us to understand that the teacher is also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process, which eventually forms a communal context of education.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never assumes a closed ending in the educational context, yet an open ending: continual form of the re-edu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Proverbs, wisdom, community education, fear of the Lord, Christian worldview

* 2022년 8월 16일 접수, 9월 14일 최종수정, 9월 16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구약학 부교수 gemkhs@gmail.com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잠언의 지혜 교육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적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잠언이 기독교 교육의 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등장할 뿐 아니라, 잠언은 지혜서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론에 있어서 잠언의 지혜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혜자들에 의한 교육이 기독교 교육론의 기초 부분에서 성경적 교육의 예로 제시된다(이홍찬, 2008: 44-45). 김광륜은 기독교 대학에서의 잠언을 교육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방법을 실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김광륜, 2010: 51-74). 잠언은 구약 지혜서 3권(욥기, 잠언, 전도서) 중 하나인데,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 주고 있기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잠언은 전도서나 욥기와는 달리,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낸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내용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욥기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및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배움을 얻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잠언은 주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때 가르치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초적인 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틀로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잠언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적인 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잠언 주석이나 연구들에서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은 쉽게 찾을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잠언 본문에 대한 고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잠언을 통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에 대한 함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장으로 가정, 교회, 사회, 학교를 들 수 있을 것인데(이홍찬, 2008: 508-532), 이러한 교육의 장에 대한 이해에 아직 잠언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연구가 적용되지는 못하였으므로, 기독교 교육 연구로서의 의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구조 안에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잠언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잠언이 제시하는바 지혜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기초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위한 함의를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여호와 경외 세계관으로서의 잠언

먼저 잠언의 신학적 특성과 해석학적 구조를 살펴보자. 이는 이후에 고찰하게 될 잠언에서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성 발전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잠언의 구조적 흐름이기에 본 논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약성경에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세 권의 책이 있다. 잠언, 전도서, 욥기이다. 이 지혜서 세 권에서는 구약의 다른 부분들 즉 오경, 역사서, 선지서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바로 ‘삶의 현장과의 연관성’이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직접 부딪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배움의 과정을 헤쳐나갔던 신앙 여정의 산물들이다(현창학, 2009: 9-24).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탁의 내용들을 간혹 포함하고 있지만, 지혜서의 대부분은 구약의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풀어낸 가르침, 노래, 혹은 질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지혜서의 저자들이 가지고 씨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서 각 권은 조금씩 서로 다른 주제를 보여준다. 먼저 잠언을 살펴보면, 잠언은 주로 일상생활의 평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룬다. 언어생활, 리더십에 대한 순종, 재물,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친구 관계 등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이슈들에 대해 가르친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9장이 잠언의 서론인데, 여기서 여호와 경외 사상의 근원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0-29장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통찰들을 제시하며, 30-31장에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즉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도서는 조금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점에 비추어본 인생의 의미를 관조하듯이 풀어낸다. 더 이상 지혜를 선택하라고 강조하지 않으며, 그 지혜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더 깊은 존재론적 사색으로 들어간다. 같은 지혜서인데, 접근하는 관점이 사뭇 다른 것이다. 욥기 또한 잠언과 전도서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의 삶의 스토리 안에 친구들과의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질문이다. 의인으로 인정하신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의롭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서 인정하며 섬겨야 할지를 질문한다. 잠언과 전도서가 인간의 삶에 대해 묻고 답한다면, 욥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묻고 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지혜서 세 권은 각각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혜서 세 권 안에서 공통점은 선명하게 발견된다. 세 권을 서로 긴밀히 연결해주는 공통 주제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이다. 잠언 1:7과 9:10에서 잠언의 핵심 구절로 이해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은 전도서와 욥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서 12:13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에서 결론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호와 경외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욥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명확하게 밝힌다(욥 1:1, 8; 2:3).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욥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더 깊이 세워지는 훈련을 통과한다. 즉, 구약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욥기는 모두 여호와 경외라는 개념을 그 사상적 기초로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경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전도서, 욥기의 본문을 각각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으며, 그 이상의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적 세계관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잠언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배우고,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여호와 사상을 배우고, 욥기가 훈련시키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훈련받는다면, 세 권을 통해 각각 얻게 된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구약 지혜서가 말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의 큰 그림을 정리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잠언의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인식론적 관점’에 접근한다(김희석, 2011: 203-235). 어떻게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를 분간해낼 수 있는냐는 ‘분별의 관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특별히 잠언 1-9장은 지혜 여인과 음녀 사이를 명확하게 대조시키면서 잠언의 독자들에게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음녀의 유혹은 매우 집요하며,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지혜와 음녀를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잠언 1:7 및 9:10에서 1-9장의 서론과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을 붙잡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 원칙은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경외이다.”라는 명제이다. 지혜를 찾아서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가 되어 도리어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지혜를 찾아 축복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면, 오히려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까지 더불어 누리게 된다. 여호와 경외는 단순한 실천을 위한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진실한 가치들이 세상의 죄에 물든 가치로부터 분별해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론적 세계관’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 과정 중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핵심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배운 후에는, 잠언 10-29장에 나오는 많은 잠언들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실제

의 삶 속에서 연마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삶의 문제를 통해 그 세계관을 씌름하도록 구약 지혜서의 입문서인 잠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III. 잠언의 구조와 해석학적 이슈

1. 잠언의 구조

잠언은 전통적인 신학 견해 범주 안에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해되어 왔다. 비평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솔로몬 저작설을 부인하지만, 왈트키(Bruce K. Waltke)와 같은 보수적인 학자는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한다(Waltke, 2004: 31-36).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하자면,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며, 그 후 어떤 단계에서 수집이 된 것이다(Estes, 강성열 역, 2007: 293-298). 왕상 4:32은 솔로몬이 삼천 가지 잠언을 말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 잠언들을 모아 수집하여 현재의 잠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은 잠언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잠 1:1; 10:1; 25:1). 물론, 잠언 중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잠언 전체의 구조와 더불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1-9장	솔로몬의 잠언(1:1)
본론 I	10:1-22:16	솔로몬의 잠언(10:1)
본론 II	22:17-24: 22	지혜있는 자의 말씀(22:17)
본론 III	24:23-34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24:23)
본론 IV	25-29장	솔로몬의 잠언(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 25:1)
결론 I	30:1-33	아굴의 잠언(30:1)
결론 II	31:1-9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씀(31:1)
결론 III	30:10-31	현숙한 여인의 송가

각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고찰해 보도록 하자.

(1) 1-9장

잠언 1-9장은 잠언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잠언 10장 이후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서론’이라는 표현은, 어떤 책의 가장 앞에 나오

는 한 본문 혹은 맥락이 나머지 전체의 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잠언 1-9장은 10장 이후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리를 제시한다. 1-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며(잠 1:1), 솔로몬이 아들을 가르치려고 비교적 긴 교훈을 연달아 펼쳐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잠언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2) 10:1-22:16

잠언 본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주로 개별잠언들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잠언이란 한 문장으로 구성된 개개의 잠언을 말한다. 속담이나 격언처럼 한 줄 안에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짧은 형태의 문장이 바로 개별잠언이다. 10:1-22:16은 이미 지어져 있었던 개별잠언들을 나중에 수집한 것인데, 저자는 솔로몬이다(잠 10:1). 이 부분은 해석학적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1-9장의 해석학적 서론인 여호와 경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의 이슈들을 풀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문단이다.

(3) 22:17-24:22

잠언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개별잠언의 모음집이라기보다는, 1-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교훈과 비슷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다. 저자는 솔로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의 말씀들’로 표기되어 있다(잠 22:17). 이 부분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것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솔로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이라고 표기되었다.

(4) 24:23-34

잠언 본론의 세 번째 부분으로, 22:17-24:22와 유사한 형식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역시 솔로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에 의한’이라는 문구만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5) 25-29장

잠언 본론의 네 번째 부분이다.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고 잠 25:1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에 수집하여 잠언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첫 번째 본론 부분(10:1-22:16)과 유사한 개별잠언 모음집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별잠언들 역시 1-9장에서 이미 가르쳐준바 여호와 경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생활의 통찰력들을 해석,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잠언 전체의 구조를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6) 30장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굴의 잠언은 매우 독특한 표현기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신학적인 성격은 잠언서 전체의 신학적 성격을 잘 요약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31장과 더불어 잠언의 결론 역할을 한다.

(7) 31:1-9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교훈의 내용들이다. 여자와 술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통치권을 행사할 것을 교훈하는데, 31:10-31의 내용과 연결되어 잠언 전체의 결론을 형성하게 된다.

(8) 31:10-31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본문으로,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송가는 앞선 르무엘 왕의 말씀과 연결되어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 기능한다. 여호와 경외 사상을 실천하였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현숙한 여인의 가정이 복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2. 잠언의 구조와 관련된 해석 이슈들

이러한 잠언 전체의 구조가 본문 해석과 연관되어 갖게 되는 이슈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잠언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본문인 10-29장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1-22:16 및 25-29장은 주로 개별잠언들의 모음집이다. 이 개별잠언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독자들 앞에 제시한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왕 혹은 신하와의 관계, 재물 사용, 언어생활, 우정, 마음 관리, 직업윤리, 건강, 게으름/부지런함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펼쳐진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867-917).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들보다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려 하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이 개별잠언들을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본문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만큼, 그 올바른 적용과 해석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학자들은 개별잠언의 해석에 있어서 독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 이유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상황성’(situationality)의 문제이다. 상황성이란 “하나의 개별잠언은 하나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라는 뜻이다(Crenshaw, 1998: 71 ; Van Leeuwen, 1988: 87-106 ; Waltke, 1992: 17-22). 다시 말

해, 솔로몬이 어떤 잠언 하나를 지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적절한 지혜를 잠언으로 표현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성'의 문제는, '상황 윤리'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상황 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예를 들어 십계명 혹은 핵심교리에 해당하는 가르침들)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비롯된 윤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황성이란, 본문 자체가 그 적용의 범위를 이미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자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잠언을 바로 적용하려면,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원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적용해야만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잠언 10-29장이 원래 따로 따로 지어진 개별잠언을 나중에 한 본문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잠언이 아닌 일반 성경 본문들은 그 앞뒤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러한 정보로부터 본문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잠언은 경우가 다르다. 개별적으로 지어진 잠언이 나중에 수집되었고, 따라서 개별잠언 모음집인 10-29장, 특별히 10:1-22:16 및 25-29장에서는 정형화된 문맥은 등장하지 않는다. 각 개별잠언과 관련된 원래의 역사적 상황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개별잠언의 올바른 해석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맥 및 역사적 정황의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언 본문인 10-29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해석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별잠언들의 상황성을 극복하고 개혁주의 원리로 잠언들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잠언 1-9장에서 제시된다. 1-9장은 10-29장의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구약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1-9장은 잠언서 전체를 위한 해석학적 서론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1-9장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를 인간의 인식론적 세계관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 경외 사상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인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구조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교육자와 피교육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1-9장, 22:17-24:34, 그리고 30-31장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설정 형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는 개별잠언 모음집인 10:1-22:16 및 25-29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즉,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지혜 교육의 현장이 1-9장, 22:17-24:34, 30-31장이고, 이 문단들이 잠언의 해석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문단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잠언 구조의 흐름에 따른 교육자와 피교육자 관계 설정

잠언이 드러내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잠언 학계는 통일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고대 이스라엘에 지혜자 그룹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지혜 자체를 전수하는 학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증명하기 어렵다(현창학, 2009: 47-57) ; Lux, 구자용 역, 2012: 98-104).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혜학교라는 역사적인 이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통해, 잠언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와와의 관계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브라운(William P. Brown)은 잠언 전체를 인격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보면서 가정에서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Brown, 1996: 22-49). 위에서 설명한 잠언 전체의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각 부분은 화자와 청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각각 독특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하의 설명은 연역적 설명이 아니라 귀납적 설명이다. 즉 잠언 본문의 거시적 구조 흐름을 따라 설명해 나가게 된다.

1. 1-9장

잠언 1-9장은 잠언 전체를 위한 해석의 서론인데, 그 중심 주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명령에 있다. 그래서 화자(가르치는 이)는 솔로몬이며, 청자(배우는 이)는 솔로몬의 아들로 규정된다.

(1) 잠 1:1-7

잠언 1:1-7은 잠언 1-9장의 서언인데, 잠언 1-9장을 읽는 목적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① 잠언의 교육목표

잠 1:2-3은 잠언이 의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잠 1:2)”,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잠 1:3)”

2절은 잠언 1-9장을 읽는 이유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위함이라고 말한다. 지혜와 명철은 사실상의 유사어휘이기에, 이는 잠언교육의 목표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그 지혜 얻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더 멀리 내다보는 보다 큰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3절이 밝혀준다. 개역개정판이 3절에서 ‘지혜롭게’라고 번역한 단어는 ‘지혜롭게 행하여 성

공하다'라는 의미이며, 잠언이 전형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아니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143). 3절의 핵심은 원문의 하반절 문구인 '공의, 정의, 정직'이다. 대개의 영어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justice, equity'로 번역하는데, 이를 '정의, 공의, 올바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즉, 잠언의 교육목표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서 정의/공의/올바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지혜교육은 그 지혜를 통하여 독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올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② 지혜 교육의 대상

1:1-7은 1-9장의 화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잠 1:4)”

잠언 1-9장의 독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로 규정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아직 최종선택을 하지 않은 순수한 자, 미숙한 자 혹은 순진한 자로 이해되어야 한다(Clifford, 안근조 역, 2015: 58-59). 즉,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미련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 상태의 존재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하반절의 '젊은 자'로 다시 한번 재규정된다. 젊은 자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을 의미하는데, 이는 잠언 전체가 독자를 향해 “지혜를 얻으라.”라는 메시지를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비유로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잠언을 배우는 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관계 맺기를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잠언 1-9장은 배우는 이가 아직 지혜를 갖지 못한 자인 것으로 상정한다. 1-9장을 읽으면 '지혜를 갖지 못한 자'가 '지혜를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된다. 1-9장의 목적은 독자(배우는 이)를 '미숙한 자'에서 '지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잠 1:8-3:35

이 본문은 잠 1-9장의 본론(1) 부분인데, 1:1-7에서 서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매우 논리적으로 이끌어간다. 이 단락에서 화자는 솔로몬이며, 청자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화자가 '솔로몬' 즉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버지 자신만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메시지'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메시지이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 1:8)” 즉 내용은 부모 모두의 것인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화자는 아버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교육을 받는 대상을 '내 아들'로 규정하면서 교육해 나간다. 1:8-3:35의 중심 내용은 '추구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라는 명령이다. 1:8-3:35에서 솔로몬이 화자가 유일한 본문은 잠 1:20-33인데, 이 부분에서의 화자는 '지혜 여인'이다. 지혜가 여성

으로 의인화되어 청중들에게 1인칭 화법으로 연설한다. 이 본문은 나중에 8장에서 더 발전되어 나타나게 된다.

(3) 잠 4-8장

이 단락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먼저 청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4장 1절에는 ‘아들들아’라는 복수형이 등장한다. 배우는 이가 ‘복수형태’ 즉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경우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다. 잠언 3장까지는 배우는 이 즉 독자가 단수형으로 나타났는데, 4장에서는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통해 배우는 이가 복수로 나타난다. 즉 배우는 이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잠언의 구조적 흐름에서 이러한 확장은 다양한 의미의 공동체 형태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4장 1절에 왜 이런 복수형이 등장하는가? 4:1-9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바로 이 부분부터 화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4:4b-9에서는 자신의 선조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청자를 복수형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잠 4-8장에서 총 4번 등장한다 (4:1-9; 5:7; 7:24, 8:32-36).

4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잠언의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일종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화자는 솔로몬이지만, 사실상 그가 전달하는 내용은 그의 가족의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며,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가족인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교육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수직적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가 사실상 수직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장의 흐름은 8장에 이르러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된다. 8장은 우리가 ‘지혜 장’이라고 일컫는 본문으로,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지혜 여인’으로 나타나며, 1인칭 화법으로 직접 연설한다. 지혜는 여기서 지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설명한다. 특별히 8:22-31에서 지혜는 자신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피조 세계 전체를 기뻐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혜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창조주의 영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Bartholomew & O’Dowd, 2011: 89-91). 정경적으로 보자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Longman, 임요한역, 2019: 319-323).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의 연설에 청자는 이전보다도 더 확장된다. 8:4에서 지혜는 인류 전체를 자신의 교육대상으로 삼는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잠 8:4)”

여기서 ‘인자들’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들’로서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 4:1에서 ‘아들들’은 솔로몬 가문의 후손들을 말하지만, 8:4에서의 ‘아들들’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확장된

다. 그렇다면 지혜가 왜 ‘아담의 아들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 8:4의 ‘인자들’이라는 표현은 8:31에서 다시 한번 발견된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31)”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창조 시점에 ‘인자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인자들’이란 역시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지혜가 인류 전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8:32에서 매우 중요한 확정의 시점을 맞게 된다. 8:32에서 지혜는 자신의 청중을 ‘아들들아’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4:1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된 문구이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잠 8:32)”,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잠 4:1)”,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잠 5:7)”,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잠 7:24)”

잠 5:7, 7:24, 8:32의 상반절은 원문이 정확하게 동일하다. 개역개정版的 번역이 서로 조금 다를 뿐, 원문은 동일함에 주목해야 한다. 8장에서 지혜 여인은 앞서 7장까지 솔로몬이 화자로서 반복하여 사용한 문구인 ‘아들들아’라는 문구를 받아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 즉 4장에서 시작된 ‘청중의 수직적 확장’은 8장의 지혜 여인 연설문에서 ‘청중의 수평적 확장’을 맞이하여 ‘인류 전체’를 그 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팍스(Michael J. Fox)는 8:32에서 지혜가 ‘아들들아’라고 청자를 호칭한 부분을 지혜가 자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로서의 청중(audience)를 뜻한다고 보았을 뿐, 더 깊이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깊이의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이다(Fox, 2000, 289-290). 대개의 잠언 연구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설정 및 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그렇기에 본 논문에 고찰한 내용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교육이란 단순히 아버지 1인이 아들 1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대대로 아들들 즉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현상이다. 배움은 공동체적이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배움은 단순한 한 가정의 경험에서 나오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잠된 지혜란 잠언 8장이 말하는 지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의미의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는 잠 9:10에 잘 나타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배움이란 지혜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며, 한 가정이나 한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란 가정에서 친족으로, 가정에서 교회

로, 지역교회에서 공교회로, 공교회에서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잠 10-29장

(1) 잠 10:1-22:16 및 25-29장

앞서 언급한 대로, 잠언 10-22:16 및 잠언 25-29장은 개별잠언 모음집이다. 여기에 ‘내 아들이’와 같은 특정적 청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잠언 모음집 본문에서 ‘내 아들이’가 나타나는 곳은 잠 19:27 및 27:11 뿐이다. 개별잠언 모음집은 우리가 본고에서 살펴보는 교육방식에 대한 뚜렷한 특징은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서 배우는 이인 청자/독자를 ‘의인 vs 악인’의 대립 구도로 편성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1-9장에서 지혜를 배워 지혜자가 된 청자/독자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이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잠 22:17-24:34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개별잠언 모음집 중간에 위치한 22:17-24:34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본문의 화자는 ‘지혜자들’이다. 이 문단에는 두 개의 표제가 나타나는데, 22:17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22:23에는 ‘지혜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지혜자들’이란 누구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지혜자들이 누구인지 본문 자체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654). 그러나, 이 화자가 ‘지혜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여기서 지혜자들이란 잠언 전체 구조에 있어서 볼 때 1-9장을 배운 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1:4에 나왔던바 ‘어리석은 자’ 및 ‘젊은이’들이 1-9장의 교훈을 통해 지혜를 만났고 지혜와 결혼했고 그래서 결국 ‘지혜를 가진 자’ 즉 ‘지혜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10:1-22:16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해 왔는데, 이제 그들은 ‘지혜자’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결국 솔로몬의 잠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지혜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한 본문 자체의 의도가 중요할 것이다.

사실, 22:17-24:34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문체와 내용이 개별잠언 모음집인 10:1-22:16보다는 1-9장과 훨씬 더 유사하다.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청자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많이 등장한다(23:15, 19, 26; 24:13, 21).

그래서 잠언 22:17-24:34은 ‘지혜 재교육 코스’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단은 10:1-22:16이나

25-29장과는 달리 개별잠언 모음집이 아니고, 오히려 1-9장과 매우 유사한 문체를 구사한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이를 설득하는 교훈체 장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1-9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가르침을 배우라는 설득이 나타나며, 술이나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 역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문단이 잠언 전체에서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1-9장에서 지혜를 추구하여 지혜와 결혼한 잠언의 독자는 10:1-22:16의 개별잠언 모음집을 거처온 후, 또 다른 개별잠언 모음집인 25-29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이는 ‘지혜자들’로 나타난다. 지혜자들은 솔로몬을 가리킬 수 있으나, ‘지혜자들’이라고 굳이 표현된 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솔로몬’ 한 사람만이 교육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장에서도 솔로몬은 자신만의 가르침을 베풀지는 않았다. 자신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이 전수되었고, 심지어는 지혜가 스스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제 우리는 22:17-24:34의 재교육 현장에서는 솔로몬은 사라지고 대신 ‘지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지혜를 전수하는 현장을 보게 된다. 1-9장에서 ‘청중의 확장’ 즉 ‘배우는 이의 확장’이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는 ‘화자의 확장’ 즉 ‘가르치는 이의 확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9장에서 지혜를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고 9장에서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 1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지혜를 배운 이들은 10:1-22:16의 일상의 문제들에서 실제 선택과 적용의 과정을 통과하였고, 이후 22:17-24:34에서 ‘지혜자 공동체’가 되어 가르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혜를 다시 배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배우는 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혜 교육의 체계가 공동체적인 상호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으로 잠언의 구조 전체에서 깊어졌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22:17-24:34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육의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교육이란 한 번 배워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평생토록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연장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반드시 숙고하고 현실에서 실천해 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교육이 실제적인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잠언에서 두 개의 개별잠언 모음집(10:1-22:16과 25-29장) 사이에 이러한 재교육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재교육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로 설 수 있게 하는 ‘가르치는 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우선, 배우는 이가 성장하여 가르치는 이가 되게 해야 한다.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배움을 얻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개인으로 서 있지 않으며, ‘지혜자들’로 표현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이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은 실천적으로 더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가르치는 이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숙제로 남는다. 신학교육이 아닌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교육에서 이런 지점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지는 혹은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혜를 배운 자들은 가르치는 이의 입장과 배우는 이의 입장에 동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배움의 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직책일 뿐,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르치는 일과 재교육 받는 일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배움의 공동체적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잠 30-31장

이제 우리는 잠언의 해석학적 결론인 30-31장에 도달했다. 이 부분은 잠언의 결론부인데, 매우 독특한 한 화자/청자(독자)의 구조를 그려내고 있어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잘 살펴야 한다.

(1) 잠 30장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 밖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812). 30장 전체에 걸쳐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1-9절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10절 이후에는 ‘서너 가지’ 등의 특수한 형식을 동원한 여러 가지 지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청자로 알려져 있는 이디엘과 우갈 역시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2) 잠 31:1-9

잠언 31장 1-9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한 말씀이다. 아들 르무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의 화자와 독자(청자)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3) 잠 31:10-31

잠언 31장의 나머지 부분인 10-31절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 아내 덕분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 1-9장에서 말하는 지혜 여인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 명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문예적 비유이며 여호와 경외를 곧

지혜의 본질로 이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언 30-31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잠언의 서론인 1-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아들들)을 교육했고, 중간 재교육 코스인 22:17-24:34에서 지혜자들이 잠언의 독자들을 공동체적 상호배움의 상황에서 재교육(평생교육)했다면, 이제 30-31장에서 우리는 아굴 및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매우 구체적인 교육자로서의 샘플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잠언은 솔로몬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결론을 맺기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 무명의 존재들을 등장시킨다. 그것도 남자 1명(아굴), 여자 1명(르무엘의 어머니)을 등장시켜 쌍을 이룬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1-9장의 가르치는 이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22:17-24:34의 ‘지혜자들’ 공동체를 거쳐, 이제는 한 구체적인 인물이 지혜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이어지는 잠언 31:10-31의 현숙한 여인의 그림은, 아굴 및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혜자들로서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언 30-3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육의 함의란 ‘지혜 교육의 실천적 열매를 실제로 보여주는 샘플’로서의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잠언은 이제 지혜자로 성장하여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 역시 사람을 길러내는 구체적인 열매를 목표로 삼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르무엘의 어머니의 경우는 교육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함의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여자와 포도주/독주를 삼가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여자와 포도주/독주는 비유적 의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잠 31:5)”,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 31:9)”

이런 요소들은 르무엘로 하여금 지도자의 바른길을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술/여인이라는 모티프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맥락은 22:17-24:34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모티프들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에서는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제시되는 것이다. 아굴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었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공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바 잠 1:3에서 잠언을 읽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제시되었었고, 이제 잠언의 결론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IV.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위한 함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바로 지혜 교육은 개인이 개인을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잠언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가르치는 이’(화자)는 계속 확장되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한 ‘배우는 이’(독자/청자) 역시 계속 확장되었는데,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로 성장해 나갔다.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 잠언이 설명하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 교육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잠언은 상호배움의 공동체적인 교육의 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에 등장하는 아굴 및 르무엘왕의 어머니는 가르치는 이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고, 배우는 이가 성장해서 가르치는 이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자리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상호배움의 교육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며, 교육이 한 기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재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잠언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다양한 관계적 형태들은 결국 배움의 장이 공동체적 상황이어야 바른 지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잠언의 전체 구조 및 화자/청자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는 결국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교육하는 지혜 교육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교육의 형태는 공동체성의 확보 및 실천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적 가르침은 공동체라는 교육의 틀 속에서 풀어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통찰력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동체적 형태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가르침이 전수되는 가정의 맥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정인 친족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교회 혹은 학교와 같은 의미의 공동체일 수도 있다. 잠언은 이런 다양한 의미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개인을 가르치는 구조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르치는 것, 자녀들이 함께 배우는 것, 자녀들이 부모로 성장하는 것, 학생이 교사로 성장하는 것,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등등, 매우 다양하고도 통합적인 공동체 교육의 양식을 잠언이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잠언의 지혜 교육을 어떤 한 가지 맥락에만 제한되게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현장의 맥락들에 적용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잠언의 능동적, 유기적, 통합적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설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현장을 떠나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어떻게 상황에 맞는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상호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도

전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성 속에서 배움을 일구어나갈 때 참된 지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잠언의 해석학적 흐름에 근거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설정 모델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성경적 가르침이 된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까지 소개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겠으나,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적용모델이 연구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성열 역. (2007). **지혜서와 시편 개론**. Estes, D. J. (2005).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Kang, S. Y. (2007).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oyang: Christian Digest Press. Trans. Estes, D. J. (2005).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 구자용 역. (2012). **이스라엘의 지혜**. Lux, R. (1992). *Die Weisen Israels*.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Ku, J. Y. (2012). *Die Weisen Israels*.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Trans. Lux, R. (1992).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김광울 (2009). 기독교대학 학생들을 위한 잠언 교육 방안. **기독교교육논총**, 23, 51-74.
- [Kim, K. Y. (2009). A Study on Proverbs Education Method for Christian College Student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51-74.]
- 김희석 (2011).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Canon&Culture**, 5(1), 203-235.
- [Kim, H. S. (2011). Proverbs 1-9: Hermeneutical functions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Canon & Culture*, 5(1), 203-235.]
- 안근조 역. (2015). **지혜서**. Clifford, R. J. (1998). *The Wisdom Literatur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Ahn, K. J. (2015). *The Wisdom Literature*. Seoul: CLC. Trans. Clifford, R. J. (1998).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 이홍찬 (2008).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 [Lee, H. C. (2008).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 임요한 역. (2019). **잠언 주석**. Longman, Tremper (2006). *Proverbs*. 서울: CLC.
- [Lim, Y. H. (2019). *Proverbs*. Seoul: CLC. Trans. Longman, Tremper (2006). *Proverbs*. Grand Rapids: Baker.]
- 현창학 (2009).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 합신대학교출판부.
- [Hyun, C. H. (2009).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Wisdom Book*.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Bartholomew, C. G. & Y. P. O'Dowd (2011).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Literature*. Downers Grove: IVP.
- Brown, W. P. (1996).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Crenshaw, J. L. (1998).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Fox, M. V. (2000). *Proverbs 1-9*.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Van Leeuwen, R. C. (1988).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SBLDS 96. Atlanta: Scholars Press.

Waltke, B. K. (1992). Does Proverbs Promise Too Much?. *JCBRF* 128, 17-22.

Waltke, B. K. (2004).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

Forms of Community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김희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잠언 전체의 구조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화자와 배우는 이/청자의 관계 설정 및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잠언이 드러내는 공동체 교육의 장의 형태를 살펴본다. 잠언 1-9장, 10:1-22:16, 22:17-24:34, 25-29장, 30-31장에 걸쳐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이 가르치는 이/화자와 배우는 이/청자 관계의 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지혜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르치는 이(화자)는 계속 확장되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둘째, 배우는 이(청자) 역시 계속 확장되었는데,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되도록 성장해 나갔다. 셋째, 잠언은 상호배움의 공동체적인 교육의 장(context)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러한 지혜교육은 배우는 이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삶의 부분들을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 교육의 렌즈로 조망하도록 교육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은 결국 배우는 이가 지혜교육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이끌고자 했다.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자리에 계속 참여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배움의 장이 형성되고, 상호배움의 터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닫힌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열린 결말 즉 평생교육(재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제어: 잠언, 지혜, 공동체 교육, 여호와 경외, 기독교 세계관